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합성과 심리적 안녕

-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요 약]

성인기에 발생하는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는 당사자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여 그러한 자기인식과 해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생애위기 경험자의 그와 같은 자기해석이 복합적일수록 긍정적인 자기특성이 양성되어 심리적 안녕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자기해석의 복합성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가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 요인, 즉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를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에 의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장애인, 이혼인, 일반인 비교집단 총 359명을 조사한 결과, 생애위기 경험집단이 평균적으로 일반인 비교집단에 비해 독립적 자기해석이 높았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낮았다.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의미 발견과 의미 부여를 돕는 관점의 다각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 태도에 기여하였으며, 이 중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을 통한 경로로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도왔다. 관점의 다각화가 우울을 직접 낮추는 효과는 예측대로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만 나타났고, 긍정적 정서를 양성하는 직접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관점의 다각화가 생애위기의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의미 발견과 긍정적 태도 양쪽에 탄력을 주어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돕는 반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우선적으로 긍정적 태도, 긍정적 정서 등 긍정성을 키워 심리적 안녕에 기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관점의 다각화와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역경극복에 동력이 되는 의미 찾기를 도우며 긍정적 태도를 양성하여 생애위기 경험자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기제와 심리적 자원으로 각각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이혼, 중도장애, 생애위기, 복합적 자기해석, 심리적 안녕, 우울, 긍정적 정서, 관점다각화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042-B00641). 본 논문을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1. 서론

성인기에 발생하는 중도장애와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생애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자기이미지(self-image)의 손상과 사회적 편견을 겪는 점에서 공통되어(옥선화 · 남영주 · 강은영, 2006; Priestley, 1998) 당사자의 적응과정과 결과에서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중도장애나 이혼은 신체적 능력이나 관계의 상실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의 상실을 가져와 우울, 불안 등을 야기하며 심리적 안녕을 위협한다(김수인, 2001; 윤용석, 2005; Richards, Hardy and Wadsworth, 1997; Turner and Beiser, 1990). 둘째, 그러한 부정적인 생애사건은 익숙한 생활방식이나 삶의 의미들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여 당사자가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meaning)를 찾으며, 상처받은 자기를 회복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인다(Baum, Rahav and Sharon, 2005; Dunn, 1996). 따라서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 이해, 신념이 나타나는 자기해석(self-construal)이나 자기관이 그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다(deRoos-Cassini, Aubin, Valvano, Hastings and Horn, 2009). 끝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낸 이들은 의미 찾기(김지혜, 2008)와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긍정적 힘(김미옥, 2008)이 역경 극복의 중요한 동력이 됨을 보여준다. 즉 예기치 않은 불행으로 초래된 신체능력이나 관계의 상실에 대한 의미발견과 변화된 자신과 삶에 대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때 적응과 심리적 안녕이 촉진된다(Dunn, 1996).

생애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러한 사건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는 새롭게 만들어가며 삶에 적응해나가는 것을 의미 찾이라 한다(O'Conner, 2002). 그러한 인지적 노력과 그로 양성되는 긍정적 감정이나 태도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부정적인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 예를 들어, 심장마비를 겪었거나(Thompson, 1985),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불치병을 앓는 이들(Yanez, Edmondson, Stanton et al., 2009), 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중도장애인들(deRoos-Cassini et al., 2009; Dunn, 1996), 이혼인들(김지혜, 2008) 그리고 화재경험자들(Thompson, 1991) 사이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과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애사건은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어 예방하거나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의미 찾기를 돕고 긍정적 태도를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나 자원의 규명이 가능하다면, 당사자는 그것을 활용하여 상처받은 자기를 회복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가지며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심리적 기제나 자원은 일단 개발되거나 습득되면 삶의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이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러한 긍정심리의 기능과 역할이나 그것을 활성화하는 심리적 기제나 자원에 대한 연구가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주로 질적연구(예: 김지혜, 2008)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중도장애와 이혼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당사자가 적응과정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요구되거나 위축되는 생활경험을 하는 점에서 공통되어, 그러한 측면의 자기해석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사함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Langer(1989)에 따르면

자기이미지의 손상과 주류사회의 편견을 겪기 쉬운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다면적이고 진화하는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갖도록 도울 수 있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지향하는 임파워먼트, 즉 당사자의 삶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 획득(Rappaport, 1985)과 심리적 안녕에 기여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와 자기해석에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자신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 한 면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중시하는 복합적인 자기해석의 의미 찾기를 돕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당사자의 긍정성과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복잡한 산업 및 사회구조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발생률이 높으며(문재우, 2004), 이혼율의 증가 추세도 신혼기와 황혼기에 여전하여(통계청, 2009) 성인기에 생애위기를 맞거나 역경에 처하는 이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도장애나 이혼으로 주류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에서 우세한 자기해석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떠한 자기특성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돕는 자원이나 기제가 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생애위기를 겪은 자들이 역경의 극복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쌓고 의미를 만들어가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회복지학에서 강조되는 강점관점(Miley, O'Melia and DuBois, 2001)과 긍정심리학의 연구지향점(Seligman, 2002)에도 부합된다.

게다가 이제까지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서 주도해 온 심리연구나 이를 사회복지 이슈에 응용해 온 서구의 임상사회사업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자기해석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간과해왔다. 근래에 문화심리 연구를 통해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문화차가 드러나면서(Markus and Kitayama, 1991) 그러한 자기해석이 개인 내에 공존하는 것이 함께 밝혀졌지만(예: 김지경·김명소, 2003; Singelis, 1994), 문화차에 관심이 집중되어 이 두 자기해석의 통합 정도를 고려한 복합적인 자기해석의 기능이나 자기해석의 개인차와 관련된 생애경험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자기이론과 관련 연구들을 보면(Baumeister, 1998), 자기해석이 복잡적일수록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각화가 가능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양성하여 심리적 안녕에 기여함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관점의 다각화는 최근 연구에서 개인의 의미발견과 의미부여를 도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촉진하는 인지적 성향으로 지목되었고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양성하는 자기긍정성의 한 근원으로 확인되어(현경자, 2009), 그러한 인지적 성향이 의미 찾기를 돕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인기에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를 경험한 집단과 그러한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일반인 집단을 이용하여 기존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자기해석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복합적인 자기해석과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돕는 자원과 기제가 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및 복잡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경로분석을 통해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의미 찾기를 돕는 관점의 다각화와 연결되는지, 관점의 다각화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통해 복합적 자기해석의 효과를 매개하며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조사

하였다. 이 연구는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긍정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특성과 기제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교접근을 취하였고, 질적접근을 주로 취해 온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이들의 적응과 탄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개념화된 자기긍정성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긍정심리에 기반한 임파워먼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찾기를 돕는 인지적 역량과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개입지점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1) 생애위기의 경험과 자기해석

(1) 자기해석의 역동성과 복합성

자기 또는 자아로 해석되어지는 셀프(self)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모든 면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이해, 신념, 느낌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심리적 조직체로 볼 수 있고(Neisser, 1988),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그 구조와 내용이 변화될 수 있어 역동적인 체계로 간주된다(Epstein, 1973). 이러한 자기의 특성 중 자기해석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무엇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며, 서구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에 가치를 두는 독립적 자기해석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교문화권에서는 개인의 관계성에 가치를 두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우세하다(조궁호, 2003; 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1998). 하지만 미국과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자기해석 연구들은 그러한 자기해석들이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개인 내에 공존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현경자, 2007 참조), 문화에 상관없이 성인남녀의 자기해석이 이원적이며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복합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자기해석의 예측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유교문화와 서구적인 현대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도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자기해석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한국인일수록 독립적 자기해석이 높아(Hyun, 1995), 각각의 자기해석을 양성하는 사회문화적 경험이나 생애경험이 특정 문화권 내에서 다양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과 자기해석

개인의 자기인식이나 해석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변화한다면(Baumeister, 1998; Epstein, 1973; Markus and Wulf, 1987), 성인기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의 삶을 사는 것이나 이혼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인 우리사회에서 이혼인으로 살아가는 것(옥선화 외, 2006)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와 자기존재에 대한 성찰을 초래하여 자기해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장애로 손상된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활과정을 거치는 중도장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아오던 익숙한 삶을 뒤로 하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혼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의미부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활경험이 자기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드물지만, 그와 같은 생애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자기성향이 발전되거나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이 있다(예: 김미옥, 2008; 김지혜, 2008; 성정현, 1999; Duffy, Thomas and Trayner, 2002; King and Raspin, 2004).

예를 들면, 성인기에 지체장애인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일 보다 당사자에게 충격적이지만 중도장애인을 인터뷰한 연구를 보면 장애의 한계를 딛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발전적인 모습이나 자기조절을 요하는 '마음 다스리기' 등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김효빈, 2001) 역경의 극복과정에서 자기주도성, 적극성 등 독립적인 자기와 밀접한 특성이 탄력적인 중도장애인들 사이에서 발견된다(김미옥, 2008). 한편 서구권의 이혼연구를 보면, 이혼으로 상실되었거나 상처받은 자신을 회복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변화를 인식하는 여성들이 많고(Baum et al., 2005; van Schalkwyk, 2006), 이혼남녀의 삶에서 독립성과 관계성의 이슈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국내연구에서도 이혼은 여성의 자기인식과 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는데(문현숙·김득성, 2000),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 예로, 옥선화 등(2006)에 따르면 이혼인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주변인의 이중적 잣대로 자기비하, 실패감, 위축, 대인회피에 따른 관계망의 축소 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혼여성들 사이에서 독립성이 발달하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거나(김지혜, 2008) 친밀한 관계의 상실로 이혼남성들의 정서적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는(손정연·한경혜, 2006) 연구를 통해 독립성과 관계성의 이슈가 우리나라 이혼인들에게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인의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한 문화권 내에서도 자기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성인기의 생활경험이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을 요구하거나 억제할 경우 자기해석이 그러한 경험에 의해 조절되거나 변화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와 그 이후의 적응과정이 당사자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촉구하고 격려하거나 위축시킨다면, 중도장애인이나 이혼인의 자기해석은 그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자들과 차별화되는 유사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및 복잡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2)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중도장애나 이혼이 당사자의 자기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개인 내에 공존한다면,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단면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심리적 안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기존문헌을 보면 심리적 안녕은 마음이나 생각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 즉 주관적 안녕(Bradburn, 1969; Diener, Suh, Lucas, and Smith, 1999)을 의

1) 생애위기의 사건적 공통점이 없더라도 적응과정의 공통점으로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이 유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이혼인과 중도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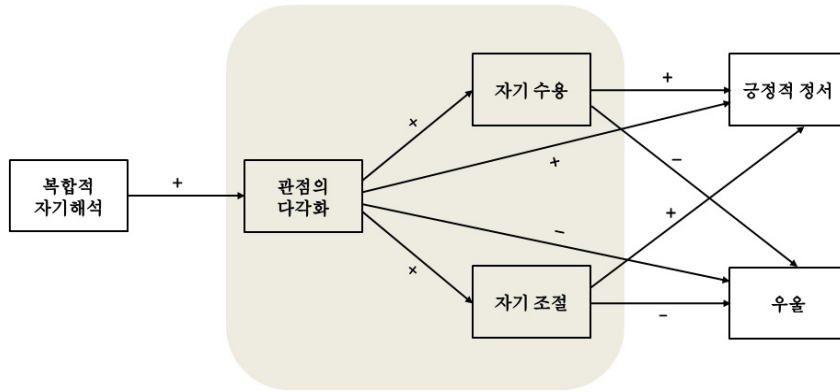
미하거나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돕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마음상태, 즉 심리적 건강성(Ryff, 1989)을 뜻하며, 관련 연구도 이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Keyes, Shmotkin and Ryff, 2002). 중도장애나 이혼은 경제적 곤란, 역할 상실 등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을 수반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매우 높아(김수인, 2001; 김오남, 2004; 윤용석, 2005; Richards et al., 1997; Turner and Beiser, 1990)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 긍정적 정서를 높여 당사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그와 같은 심리적 안녕의 결정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객관적인 조건들에 의한 설명력이 8%~15% 사이로 낮고, 생애사건이나 사회물리적 환경의 지각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특성(예: 성격, 인지성향, 동기, 목표), 적응력, 대처전략 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Diener et al., 1999 참조) 자기해석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기(self)는 인간의 행동이나 세상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재하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자기개념(self-concept)은 생활 속에서 받는 다양한 자극 중 무엇을 지각하여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Markus and Wulf, 1987). 따라서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해석은 개인의 인지성향, 행동동기, 감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Markus and Kitayama, 1991) 생애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마음상태 또는 심리적 안녕을 좌우할 수 있다(Cross, 1995). 예를 들면,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구별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맞추어 내면적 자기에 대한 성찰을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촉진할 수 있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연계된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적 또는 상황적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촉진할 수 있다(조공호, 2003; Fiske et al., 1998). 그러므로 자기해석의 양 측면이 모두 명확한, 즉 자기해석이 복합적인 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인지적 활동은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관계 또는 환경 속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과 시점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성향을 키워 심리적 안녕을 도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까지 자기해석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주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각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학생, 기혼남녀 등을 이용하여 심리적 안녕의 한 측면, 즉 결혼만족(현경자, 2004)이나 생활만족(Kwan, Bond and Singelis, 1997)에 기여하는 경로를 밝힌 것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유일하게 이 두 자기해석을 통합유형별로 살펴 본 연구에서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의 기혼자가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하거나 자기해석이 미분화된 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는 결혼을 안정적으로 지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현경자, 2007). 기존연구를 보면 자기의식과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높을수록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향하고(Diener and Wallbom, 1976), 자기이미지의 손상과 사회적 편견을 겪기 쉬운 사회적 소수자일수록 다면적이고 진화하는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Langer, 1989), 자기개념이 복잡적일수록 당사자가 스트레스 요인들의 위협에서 보호되어 우울이나 질병이 예방될 수 있다(Linville, 1987). 따라서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복합적 자기해석이 생애위기 경험자의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 밀접하게 연관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3) 복합적 자기해석, 자기긍정성 구성요인 및 심리적 안녕 간의 경로모형

자기해석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자기해석과 심리적 안녕 간의 정적인 관계는 여러 경로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중도장애인이거나 이혼인의 긍정성을 키울 수 있는 인지적 성향, 즉 관점의 다각화와 그로 촉진될 수 있는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를 조사하였다. 이 모형의 매개경로들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림 1> 복합적 자기해석이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경로.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요인은 음영을 두어 구별하였고, 정적관계는 +로 부적관계는 -로 표시하였음.

(1) 의미 찾기와 개인의 긍정성을 돕는 관점다각화의 매개효과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이며 그것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큰 틀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큰 틀의 통합, 즉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독립성과 관계성이 요구되는 각각의 상황에 기능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인식에 기반하고 있어 현경자(2009: 16)가 최근 연구에서 긍정적 태도의 한 근원으로 제시한 관점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관점의 다각화는 “사물, 사람, 세상 또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지적 성향 및 활동”으로 정의되며, 이는 개인이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관점의 다각화는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범주화하여 의미를 만들어가는 맥락이나 참조틀의 선택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이는 의미발견과 의미부여를 도와 대안적인 의미창출과 상황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인지적 활동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개인의 긍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중도장애인이거나 이혼인은 사회의 기득권층이 옹호하는 주요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또는 결합이 있는 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을 겪기 쉽고(문현숙·김득성, 2000; Langer, 1989), 그러한 주류사회의 편협한 관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자기비하, 우울, 위축 등 정서적 고통에 취약하다(옥선화 외, 2006; 윤용석, 2005). 관점의 다각화는 당사자가 이혼이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구속되지 않고, 변화된 자신과 현재의 삶에 간혀 간과할 수 있는 과거와 미래의 자기 모습과 자신의 역량, 잠재력, 가능성, 가치 등을 생각해보며 의미를 찾도록 도와 삶에 대한 통제감과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 의미가 인간의 삶에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Frankl, 1963), 부정적인 생애사건의 대안적 의미를 찾도록 돕는 인지적 성향은 역경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며 긍정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데(김지혜, 2008), 이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의미 찾기가 촉진되고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과 이해를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정서는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미의 발견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한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도록 돕고, 긍정적 감정은 감정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다시 긍정적인 의미를 찾도록 도와 심리적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촉진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화시킨다(Fredrickson, 2000; Tugade and Fredrickson, 2004).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활발할수록 생애위기의 경험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자기해석의 복잡성은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그러한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관점의 다각화와 그에 따른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을 통한 매개효과

관점의 다각화는 실제로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자기긍정성과 사회적용, 사회수용과 같은 사회긍정성을 아우르는 긍정적 태도의 핵심요인으로 확인되어(현경자, 2009), 그러한 인지적 성향이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양성하며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점의 다각화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긍정적인 의미발견과 의미부여를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그리고 보다 많은 측면에서 할 수 있게 하므로 생애위기의 경험자들 사이에서 현재의 자신에 대한 수용과 자기만족을 유도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조절 기능을 도울 수 있다(현경자, 2009 참조). 기존문헌을 보면 자기수용, 자기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낮추며(Schaefer and Moore, 1992), 자기조절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여 개인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초래하므로(Banaji and Prentice, 1994) 이 역시 직접적으로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에 정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의 감소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3) 연구모형의 적용대상 및 차별성

이 연구는 중도장애나 이혼으로 생애위기를 경험한 자들의 자기해석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복합적일수록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인지적 성향, 즉 관점의 다각화와 그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이 촉진되어 심리적 안녕이 강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의 경로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애위기 경험자의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관점의 다각화에 정적으로 연관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 즉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와 낮은 수준의 우울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어서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정적으로 연관되고, 복합적 자기해석은 이러한 자기긍정성 변수들을 통해 긍정적 정서와 우울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긍정적 태도와 심리적 안녕을 돕는 자원이 될 수 있는지, 관점의 다각화가 의미 찾기와 긍정적 태도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통해 그러한 자기해석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경로모형은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심리적 안녕을 이해하고 돕는데도 적용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긍정적 정서를 생성하는 기본 좋은 사건이나 의미 찾기를 돕는 대처방식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를 양성하는 한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지만,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 않은 통제집단에서는 긍정적 정서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ich and Zautra, 1981; Tugade and Fredricks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우울을 낮추는 직접효과가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에서 논의된 자기긍정성은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개념화되어 서구에서 개념화된 자기존중감과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기긍정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서구에서 개발된 자기존중감 척도(예: Rosenberg, 1965)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촉진하는 요인과 그런 자기평가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참작하여 이 두 요인을 함께 측정하지 않으므로 평가된 긍정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시킨다(Baumeister, 1998). 게다가 서구에서 개념화된 자기존중감은 독립적인 자기에 초점을 맞춘 긍정성이라(Heine, Lehman, Markus and Kitayama, 1999), 환경 속의 인간이나 관계 속의 인간을 중시하는 사회사업적 관점이나 문화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관점의 다각화를 기반으로 이를 통해 촉진되는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의 효과를 살핀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3. 연구 방법

1) 표집

본 연구는 성인기에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를 경험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하였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세부터 59세 사이의 청장년층 중에서 만 24세 이후에 장애를 경험하였거나 이혼을 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이혼인의 경우 자녀의 유무가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장애나 이혼적응에 사건 발생 후의 시간적인 경과가 중요하고, 자기해석에 그러한 생애위기 후의 생활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여 중도장애나 이혼 발생 후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제 참여자의 나이는 최소 만 26세 최대 만 59세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도장애나 이혼 발생 후 1~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들이 심리적 평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윤용석, 2005; 최정숙, 2004) 생애위기 발생 후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표집 원칙에 따라 2007년 11월에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중도장애인과 이혼인 집단을 각각 90명 이상 표집 하였고, 이후 각 생애위기 집단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일반인 집단을 매치하였다.

(1) **중도장애인 집단:** 이 연구에서 중도장애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만성질환 등으로 만 24세 이후에 지체장애(physical disability)를 갖게 된 성인 남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절단, 척수장애 등으로 사지의 일부를 잃어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거나, 척수 또는 사지손상으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특정대상의 표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혼인 집단에 적용된 자녀 조건이 제외되었으며 재가 장애인으로 한정하였고, 장애 발생 후의 기간에 대한 표집원칙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되었다.²⁾ 이들에 대한 표집에는 전문조사기관과 본 연구자가 참여하였다.³⁾

(2) **이혼인 집단:** 이혼인의 표집은 장애인 표집 보다 어려움이 컸다. 이혼인을 돕는 기관 및 단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조사기관에서 서울 지역 12개 구와 수도권 2개 구에 거주하는 이혼인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하였다.

(3) **일반인 비교집단:** 중도장애인과 이혼인 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의 표집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을 맞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혼인 비교집단 표집은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였고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자들만 포함시켰다.⁴⁾ 중도장애인 집단의 경우,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자가 비슷한 시기에 수집한 서울지역 저소득층 부부 표본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맞추어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다.⁵⁾

-
- 2) 자료수집 과정에서 장애기간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의 경험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조사에 관심을 보인 중도장애인들은 모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장애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사례의 경우, 응답자가 다른 표집기준에 부합되면 조사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그 비율은 전체 조사자의 18%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 3) 본 연구의 중도장애인 표집에 도움을 준 서울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국립재활원,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방이복지관, 면목사회종합복지관, 고양장애인종합복지관, 교통장애인협회 등에 감사한다.
 - 4) 조사참여자가 성인이 된 후에 생애위기가 부를만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예로는 가족과의 사별, 심각한 만성질환, 산재, 교통사고, 사업실패 등이 제시되었다.
 - 5) 중도장애인 비교집단의 경우 조사 실시 전에 생애위기의 경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혼인 비교집단과의 자기해석 동질성 검증 여부로 간접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2) 측정

(1) 자기해석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및 복잡성

자기해석은 Hyun(1995)이 개발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분리된 개인적 자기에 대한 지식, 내적 욕구와 감정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타인과의 경계 유지에 대한 동기 등을 묘사한 12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예: “나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연관된 자신에 대한 지식,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예: “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각 척도는 8점 척도(‘1.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8. 전적으로 그렇다’)로 되어있고,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자기해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2와 .86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자기해석은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이해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 생활 속에서 그러한 양 측면의 자기해석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기해석의 측정은 응답자들이 보고한 각각의 자기해석 평균 점수에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점수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⁶⁾ 자기해석이 가장 복합적인, 즉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각 자기해석의 전체집단 평균 점수보다 2.5 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각각 6점이 부여되어 자기해석 복잡성의 점수가 12점이 되고, 자기해석이 복합적이지 않은,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전체집단 평균 점수보다 1/2 표준편차 또는 그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경우로 각각 0점이 부여되어 자기해석 복잡성의 점수가 0점이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해 자기해석의 복잡성은 점수가 최소 0점에서 최대 12점인 연속 변수로 측정되었다.

(2) 자기긍정성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은 현경자(2009)가 개발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자기긍정성 하위요인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관점의 다각화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데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며, 의미와 해결책을 찾는 성향을 묘사한 7개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나는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6) 이를 위해 자기해석 각각의 전체집단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1/2 표준편차 이상 높아질 때 마다 1점이 부여되어 여섯 가지 등급이 만들어졌다. 각각의 자기해석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로서 기능하려면 응답자의 그러한 자기해석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응답자 개인의 자기해석 평균점수가 소속된 집단의 평균점수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즉 ‘5점. 약간 그렇다’ 내외에서 그 이하(‘4점. 약간 그렇지 않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면 0점으로 처리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집단의 평균점수와 1/2 표준편차 이하 점수 사이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에게 1점, 그리고 그 점수 미만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에게 0점이 부여되었고, 전체집단의 평균점수보다 1/2 표준편차 이상 높아질 때 마다 1점이 추가되어 각각의 자기해석 수준은 여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일을 살피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 자기수용은 성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해내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수용과 만족을 묘사하는 6개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끝으로, 자기조절은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규제하는 성향이 드러나는 3개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나는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이 척도는 6점 척도(‘1.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6. 거의/전적으로 그렇다’)로 되어 있고, 자기긍정성 하위척도의 점수는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표본에 따라 관점의 다각화(.82~.86), 자기만족(.80~.82), 자기조절(.68~.80)이 모두 .80을 넘는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⁷⁾

(3) 심리적 안녕

이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를 뜻하며, 일찍이 Bradburn(1969)이 규정한 바와 같이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가 낮은 상태로 보였다. 따라서 그러한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는데 이용되는 긍정적 정서와 우울이 각각 측정되었다(Diener et al., 1999 참조).

①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바람직하게 인식되는 감정과 기분 모두를 아우르는 정서상태를 뜻하며, 이흥철(1994)의 기본평정척도 중 ‘긍정적 정서 척도’ 5문항, 기쁨, 즐거움, 자신감, 편안함, 상쾌함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긍정적 차원의 감정이나 기분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1.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4. 거의 항상/늘 그렇게 느꼈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⁸⁾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본에 따라 .80~.82로 나타났다.

② 우울: 우울은 지역의 우울 고위험집단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20문항으로 측정되었다(Radloff and Locke, 1986: 177).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간 우울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생각해보고 긍정적 정서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긍정적으로 묘사된 항목들은 역코딩 되었고, 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본에 따라 .86~.91로 우수하였다.

3) 분석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에 SPSS가 이용되었고, 경로모형 검증에는 AMOS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질문별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t-test를 통해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 간에 자기해석의 독립성, 상호의존성, 복합성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의 자기해석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 내의 하위유형별(이혼 vs. 중도장애/비이혼 일반 vs. 비장애 일

7) 자기조절 하위척도는 구성변수의 수가 작아 표본의 동질성이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8) 원래는 7점 리커트 척도이나 우울의 측정과 일관되게 4점 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생애위기 경험여부에 따라 구분된 전체집단 간 분석과 생애위기 유형별 (이혼 vs. 비이혼 일반/중도장애 vs. 비장애 일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합적 자기해석,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와 우울 간의 경로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집단, 생애위기 경험집단 및 일반인 비교집단에 각각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parameter)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⁹⁾ 또한 복합적 자기해석과 자기긍정성 구성변인들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심리적 안녕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와 총효과를 알 수 있도록 효과분해를 실시하여 매개효과, 즉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생애위기 경험자들과 비교집단 일반인들 사이에서 심리적 안녕을 돕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1)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첫째, 생애위기 유형별로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동질성이 검증된 생애위기 유형별 표본을 통합하여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혼인 집단(n=91)과 그 비교집단(n=90)의 경우, 목적표집의 의도에 맞게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대 및 교육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의 성별분포는 각 집단에서 여성이 약 62%, 남성이 약 38%로 거의 일치하였다. 연령대는 두 집단 모두에서 40대가 49% 내외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38.5%를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41.31세(SDs= 6.5, 7.0 각각)로 차이가 없었다. 평균 교육연수도 이혼인 집단이 14.02년(SD=2.60), 비교집단이 14.24년(SD=2.18)으로 유사하였다. 이혼인들 사이에서 이혼 후 경과된 기간은 평균 3.38년(SD=0.94)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인 집단(n=92)과 그 비교집단(n=86)의 경우, 목적표집의 의도에 맞게 성별 분포와 교육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과 일반인 집단에서 남성이 각각 73.9%와 76.7%, 여성이 각각 26.1%와 23.3%로 유사하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드러났다. 이는 중도장애의 원인인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남성이 여성보다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도장애인 집단의 연령대는 50대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비교집단은 40대의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다. 평균연령도 장애인 집단과 비교집단이 각각 47.77세(SD=6.88)와 45.16세(SD=6.34)로 차이를 보였다($t=2.63, p<.01$). 평균 교육연수는 두

9) 공변량구조분석은 경로분석에서 미지수 추정법의 제한에 따라 필요한 잔여변수의 무상관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독립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로분석과 달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어(Kline, 1998)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집단이 각각 12.43년(SD=3.17)과 12.69년(SD=2.22)으로 차이가 없었다. 중도장애인들의 장애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도장애 후 경과된 기간은 평균 8.39년(SD=5.43)이었고, 장애유형은 표집목적에 맞게 모두 지체장애로 나타났다. 그 중 지체기능장애의 비율이 60.9%(n=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척추장애로 26.1%(n=24)를 차지하였다. 장애정도는 대다수가 1~2급(80.2%)으로 조사되었다.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을 생애위기 경험집단으로, 그 비교집단을 일반인 비교집단으로 통합하여 전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분포, 교육연수, 종교 면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과 생계비를 걱정하는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생계비 걱정 경우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애위기 경험집단의 평균 연령은 44.56세(SD=7.42)이었고 비교집단의 평균 연령은 43.03세(SD=6.77)로 두 집단 모두 40대 중반에 가까웠으나 생애위기 경험집단의 평균 연령이 1.53세 높았다(t=2.03, p=.04). 교육연수의 경우 두 집단의 평균이 각각 13.23년(SD=3)과 13.38년(SD=2.26)으로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평균적으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집단의 남녀비율도 각각 남성이 56% 내외, 여성이 44% 내외로 유사하였다. 생계비의 불충분함에 대한 걱정은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걱정하는 자의 비율은 생애위기 경험집단이 71.1%로 일반인 비교집단의 63.1%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1>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변수		집단	위기경험(n=183)		일반비교(n=176)		동질성 검증	
			Mean or 빈도	SD or 백분율	Mean or 빈도	SD or 백분율	t or χ^2	p
		연령	44.56	7.42	43.03	6.77	2.03	.04
		교육연수	13.23	3.00	13.38	2.26	-0.53	ns
성별	남자		102	55.7	100	56.8	0.43	ns
	여자		81	44.3	76	43.2		
생계비 불충분 걱정	전혀 걱정하지 않음		20	10.9	13	7.4	10.87	.03
	약간 걱정		33	18.0	52	29.5		
	어느 정도 걱정		69	37.7	50	28.4		
	꽤 걱정		34	18.6	42	23.9		
	상당히 걱정		27	14.8	19	10.8		
		(Mean/SD)	3.08	1.18	3.01	1.13	0.58	ns
종교	기독교		66	36.3	60	34.1	5.27	ns
	천주교		16	8.8	11	6.3		
	불교		27	14.8	30	17.0		
	없음		72	39.6	72	40.9		
결혼 상태	미혼		19	10.4	-	-	n/a	
	기혼		56	30.6	176	100		
	이혼/사별		102	55.7	-	-		
	무응답		6	3.3	-	-		

조사참여자들의 종교는 두 집단 모두 무교의 비율이 40% 내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종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일관되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생애위기 경험집단은 미혼이 10.4%(n=19), 기혼이 30.6%(n=56), 이혼 또는 사별이 55.7%(n=102)로 나타났고, 일반인 비교집단은 모두 기혼(n=176)으로 파악되었다. 요약하면,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은 성별 분포, 교육연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평균, 종교 면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인과 중도장애인으로 구성된 생애위기 경험집단의 특성 상 결혼상태의 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비교적 부합하는 표본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생애위기 경험여부에 따른 자기해석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자기해석에 대한 관련 집단 내의 동질성 검증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에 있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평균적으로 이혼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Ms=5.12~5.50)이 독립적 자기해석(Ms=4.92~5.21)보다 높게 나타났고, 복합적 자기해석(Ms=3.16~3.81)은 각 자기해석의 평균 또는 그 보다 1/2 표준편차 이상 높은 점수 등급의 통합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생애위기 경험집단 및 일반인 비교집단의 자기해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집단구분		변수	자기해석 유형								
			독립적 자기해석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복합적 자기해석 ^a		
			Mean	SD	t	Mean	SD	t	Mean	SD	t
전체		5.05	0.85	-	5.36	0.77	-	3.53	2.42	-	
동질성 검증	이혼	5.21	0.85	0.80	5.12	0.53	-2.42*	3.16	2.13	-1.78 ⁺	
	중도장애	5.11	0.88		5.38	0.82		3.81	2.78		
	이혼비교	4.92	0.81	-0.41	5.50	0.72	0.57	3.51	2.26	-0.39	
	장애비교	4.97	0.85		5.42	0.94		3.65	2.46		
생애 위기/ 비교 집단 차이 검증	생애위기	5.16	0.86	2.33*	5.25	0.70	-2.53*	3.49	2.49	-0.34	
	일반비교집단	4.95	0.83		5.46	0.84		3.58	2.36		
	이혼	5.21	0.85	2.31*	5.12	0.53	-3.89***	3.16	2.13	-1.06	
	이혼비교	4.92	0.81		5.50	0.72		3.51	2.26		
중도장애	5.11	0.88	1.01	5.38	0.82	-0.34	3.81	2.78	-0.42		
장애비교	4.97	0.85		5.42	0.94		3.65	2.46			

[†]p < 0.1, * p < .05, ** p < .01, *** p < .001; a 평균점수의 범위는 0-11임.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 내의 하위유형별로 자기해석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은 평균적으로 독립적 자기해석에 차이가 없었고(t=0.80, p=ns),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차이가 났는데(Ms=5.12, 5.38; SDs=0.53, 0.82 각각), 중도장애인의 그러한 자기해석이 이혼인보다 높았다(t=-2.42, p<.05). 복합적 자기해석은 중도장애인의 평균이 이혼인에 비해 높았지만

($M_s=3.81, 3.16$; $SD_s=2.78, 2.13$) 일반적인 유의도 수준($p<.05$)은 아니었다. 한편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비교집단 간에는 자기해석의 독립성($t=-.41$), 상호의존성($t=.57$), 복합성($t=-.39$) 모두에 차이가 없었다($p_s=ns$).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에서 발견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차이가 생애위기의 유형과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자기해석 유형에 대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생애위기 유형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교육수준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beta=.16, p=.05$), 결혼상태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beta=.34, p<.01$). 반면 복합적 자기해석은 분석에 고려된 변수들과 상관이 없었다. 즉,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에서 발견된 상호의존성의 차이는 기혼인 중도장애인들의 그러한 자기해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유형의 자기해석은 중도장애나 이혼을 경험한 자들 사이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상태를 통제했을 때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¹⁰⁾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른 자기해석의 차이를 보면, 독립적 자기해석은 평균적으로 생애위기 경험집단이 일반인 비교집단보다 높았고($M_s=5.16, 4.95$; $SD_s=0.86, 0.83$ 각각; $t=2.33, p<.05$),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반대로 일반인 비교집단이 생애위기 경험집단보다 높았다($M_s=5.46, 5.25$; $SD_s=0.84, 0.70$ 각각; $t=-2.53, p<.05$). 반면 이 두 자기해석의 수준을 통합한 복합적 자기해석은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t=-.34, p=ns$). 생애위기 유형별로 비교집단과의 자기해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 모두 각각의 비교집단에 비해 독립적 자기해석을 높게,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낮게 보고한 점에서 일치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이혼인과 그 비교집단에서만 유의미하였다($t_s=2.31, -3.89, p_s<.05, .001$ 각각). 중도장애인들의 경우, 독립적 자기해석은 그 비교집단에 비해 약간 높았고($t=1.01, p=ns$),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미미했다($t=-0.34, p=ns$). 하지만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인 중도장애인들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평균이 $5.08(SD=0.85)$ 로 그 비교집단($M=5.42, SD=0.94$)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p=.07$),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복합적 자기해석은 생애위기의 하위유형별로도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약하면,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 응답자들의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각각 상대집단과 차별화되는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이혼이나 중도장애와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자들은 그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기해석의 독립성이 높고, 상호의존성이 낮다는 점에서 일관되었다. 하지만 그런 차이는 전체 및 이혼인 집단에서만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자기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정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복합적 자기해석, 자기긍정성 구성요인, 심리적 안녕 간의 경로모형 분석결과

복합적 자기해석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에 관련된 변수들 간

10) 표집 시에 생애위기의 경험유무가 파악되지 못한 중도장애인 비교집단과 이혼인 비교집단 간에 자기해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집단으로 통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전체집단, 생애위기 경험집단, 일반인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대각선 좌측에 제시된 전체집단의 상관계수들을 보면, 예측대로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_s=.36, .29, .30$ 각각, $p_s<.001$). 응답자들의 자기해석이 복잡적일수록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인지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자신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정도도 높았다. 복합적 자기해석은 심리적 안녕 변수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예측대로 자기해석이 복합적인 응답자일수록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r=.20, p<.001$),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r=-.20, p<.001$).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 요인도 예측과 일관되게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은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_s=.42, .44, .32$ 각각, $p_s<.001$),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r_s=-.43, -.50, -.33$ 각각, $p_s<.001$). 이를 통해 자기해석이 복합적이고 자기긍정성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복합적 자기해석, 자기긍정성 및 심리적 안녕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복합적 자기해석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긍정적 정서	우울
1. 복합적 자기해석			.40***	.30***	.30***	.18*	-.20**
		.34***		.28***	.30***	.23**	-.19**
2. 관점의 다각화		.36***		.65***	.62***	.40***	-.36***
			.65***		.57***	.40***	-.48***
3. 자기수용		.29***	.66***		.45***	.42***	-.50***
				.54***		.42***	-.48***
4. 자기조절		.30***	.59***	.49***		.31***	-.26***
					.32***		-.39***
5. 긍정적 정서		.20***	.42***	.44***	.32***		-.61***
						.32***	-.27***
6. 우울		-.20***	-.43***	-.50***	-.33***	-.45***	
전체집단	평균/SD	3.53/2.42	4.46/0.72	4.21/0.80	4.12/0.85	2.35/0.71	1.82/0.48
생애위기	평균/SD	3.49/2.49	4.32/0.75	4.07/0.78	4.10/0.86	2.24/0.65	1.87/0.50
일반비교	평균/SD	3.58/2.36	4.60/0.65	4.37/0.80	4.15/0.84	2.48/0.76	1.77/0.46

주: 상관계수는 대각선의 좌측에 전체집단 그리고 우측에 생애위기 경험집단(좌)\일반인 비교집단(우) 순으로 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주요변수들 간의 예측된 상관은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5>의 대각선 우측에 제시된 이 두 집단의 상관계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련변수들 간

의 상관계수들이 강도 및 유의도에 있어서 전체집단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¹¹⁾ 이를 통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 조건인 예측변수(자기해석 복합성)와 결과변수(긍정적 정서와 우울), 예측변수와 매개변수(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그리고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김계수, 2005)을 모든 집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서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다변량 첨도 및 특이 케이스들의 여부를 검토하였고(Kline, 1998),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우려할만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1 이하로 단일변량 정규분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기준 수치인 왜도>2, 첨도>7(Curran, West and Finch, 1996)보다 모두 낮았다. 연구자료에 결측값이 없었으므로 분석에는 리스트 단위 공변량 자료가 사용되었다. 모형분석에는 경로모형의 내생변수인 매개변인들 중 자기수용과 자기조절 잔여변수와 결과변수인 긍정적 정서와 우울 잔여변수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변량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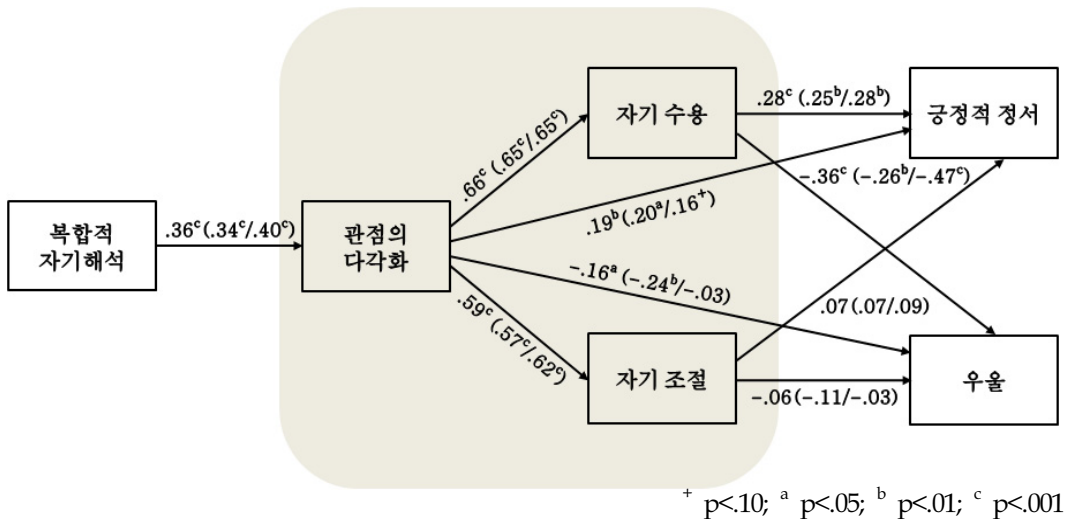
복합적 자기해석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카이사승(χ^2) 값이 전체집단 6.42(df=4, n=359), 생애위기 경험집단 5.28(df=4, n=183), 일반인 비교집단 1.85(df=4, n=176)로 나타났고, p값의 범위는 .17~.76으로 연구모형이 실제자료에 부합함을 시사하였다. 기초부합치(GFI)는 세 집단 모두 .99로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95보다 높았고(Kline, 1998), 조정부합치(AGFI)도 .95 이상이였다. 이외에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검토되는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 비교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 비표준부합치(TLI: Non Normed Fit Index)도 모든 집단에서 .98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개략화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도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05 이하(김계수, 2005)로 세 집단 모두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복합적 자기해석이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와 우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로를 추가한 결과, 이들의 효과는 모든 집단에서 미미하게 나타났다($p_s=ns$). 이러한 경로들의 추가가 연구모형에 포함된 경로들의 회귀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개략화오차(RMSEA) 값이 전체 및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 .07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χ^2 차이검증을 이용한 결과, 전체 및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에서 추가모형이 내재모형인 연구모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Delta\chi^2(2)=0.51$, $\Delta\chi^2(2)=1.24$, $\Delta\chi^2(2)=0.51$ 각각, $p_s=ns$, 추가모형에 비해 간명한 자기긍정성 변수들에 의한 매개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있다. 각 경로의 화살표 위나 아래에 표시된

11) 전체집단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 요인 간의 상관은 다른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r_s=.49\sim.66$, $p_s<.001$) 이 중 긍정성을 촉진하는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 자기조절 간의 상관은 각각 .66, .59로 자기수용과 자기조절 간의 상관인 .49보다 높았다. 이는 이 세 변수가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점의 다각화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현경자, 2009)와 일관되며 <표 3>에 제시된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이 세 요인이 자기긍정성의 구성요인으로 타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전체집단의 분석결과는 괄호 밖에, 생애위기 경험집단 및 일반인 비교집단의 분석결과는 괄호 안에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복합적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에 연관된 경로를 기점으로 분석결과를 경로별로 살펴보면, 복합적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예측대로 세 집단 모두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자기긍정성 구성요인들이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도 관점다각화의 직접효과를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였다.



<그림 2> 복합적 자기해석이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경로: 전체집단(생애위기 경험집단/일반인 비교집단) 순으로 결과 제시

구체적으로 이 세 집단 모두에서 복합적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관점의 다각화에 정적효과를 보였고 ($\beta_s=.34\sim.40$, $ps<.001$), 이어서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수용($\beta_s=.65\sim.66$, $ps<.001$) 및 자기조절($\beta_s=.57\sim.62$, $ps<.001$)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자기수용은 예측대로 세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 정서에 기여하였고($\beta_s=.25\sim.28$, $ps<.01$ 또는 $.001$), 우울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었다($\beta_s=-.26\sim-.47$, $ps<.01$ 또는 $.001$). 한편 자기조절이 긍정적 정서($\beta_s=.07\sim.09$, $ps=ns$)와 우울($\beta_s=-.03\sim-.11$, $ps=ns$)에 미치는 효과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중 일반인 비교집단에서 우울에 대한 자기수용의 부적효과가 특히 컸고($\beta=-.47$)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는 우울에 대한 자기조절의 부적효과($\beta=-.11$)가 유의도에 가까워($p=.052$ 일방향) 주목되었다. 관점의 다각화는 예측대로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 정서($\beta=.20$, $p<.05$)와 우울의 감소($\beta=-.24$, $p<.01$)를 도왔고, 일반인 비교집단에서는 우울과 관련이 없었으며($\beta=-.03$, $p=ns$), 긍정적 정서와만 정적으로 연관되었다($\beta=.16$, $p<.05$, 일방향).

요약하면, 복합적 자기해석은 예측대로 모든 집단에서 관점의 다각화와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밀접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기해석의 복잡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돕고 이를 통해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에 기여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은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하지만 이 변수들이 심리적 안녕, 즉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낮은 수준의 우울에 관련된 경로는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에서만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났고, 자기조절의 긍정적 효과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심리적 안녕에 관련된 부분의 예측은 일부만 지지되었다.¹²⁾

끝으로 중도장애나 이혼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표집된 중도장애인들 사이에서 그런 점이 부각되어 경제적인 염려를 통제하고도 본 연구의 매개모형이 지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는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긍정성이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 분석에는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이 변수가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긍정적 정서 그리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두 외생변수 간의 공변량을 추가하였다. 경제적 염려를 통제한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든 집단에서 연구모형과 유사한 수준에서 우수함을 보였다. 하지만 생활비 걱정 변수의 투입이 연구모형의 경로별 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회귀계수의 변화도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¹³⁾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모형이 자료에 부합되며 간명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무리가 없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4) 복합적 자기해석과 자기긍정성 구성요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분해

복합적 자기해석과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요인, 즉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이 긍정적 정서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한 결과¹⁴⁾, 복합적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에 미치는 간접효과(.19~.26, $ps < .01$)와 이러한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와 관점의 다각화 및 자기수용을 통해 긍정적 정서에 미친 간접효과(.05~.07)가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했다($ps < .05$). 반면 복합적 자기해석이 그러한 두 경로를 통해 우울 감소에 미친 간접효과(-.06~-0.09)는 전체 및 생애위기 경험 집단에서만 유의미했고($ps < .05$), 일반인 비교집단에서는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을 통한 경로로 우울을 낮춘 이중매개효과(-.12, $p < .01$)만 유의미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의 경험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변수는 자기긍정성의 핵심변수인 관점의 다각화로 드러났고(총효과=.40~.42,

12) 대안모형으로 복합적 자기해석과 자기긍정성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에 의해 매개되는 모형(즉, 복합적 자기해석→긍정적 정서 및 우울→관점의 다각화→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을 살펴본 결과,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CFI \leq .90$, $TLI \leq .79$, $RMSEA \geq .15$). 또한 모든 집단에서 수정지수가 복합적 자기해석에서 관점다각화로 이어지는 경로추가를 제한하여 연구모형이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모든 집단에서 경로계수들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었고 β 값의 변화가 대부분 .02 이하로 미미했다.

14) 효과분해 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들의 통계적 유의도는 Sobel의 공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고, 총효과의 유의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Kline, 1998). Shrout and Bolger(2002)는 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더라도 그 효과를 곱하여 산출되는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는 일반적으로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아, 유의도 검정 시 그러한 통계적 가정에서 자유로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 방식을 제안한다. AMOS 프로그램의 부트스트랩 분석은 이중매개 효과의 신뢰구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Sobel의 검정방식을 이용하였고, 단일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분석결과로 확인하였다. 지면의 제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자료들 -효과분해 표, 대안모형 분석결과 및 추가분석 결과 등은 연구자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p < .001$), 우울 감소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변수도 일반인 비교집단을 제외하면 관점의 다각화로 나타났다(총효과 = $-.44 \sim -.48$, $p < .001$). 그러한 총효과는 분석에 고려된 다른 변수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친 총효과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관점의 다각화에 이어 자기수용의 직접효과가 전반적으로 컸고, 자기수용은 일반인 비교집단에서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47$, $p < .001$)가 관점다각화의 총효과($-.35$, $p < .001$)보다 커서 주목되었다. 이어서 복합적 자기해석이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 감소에 기여한 총효과가 각각 $.13 \sim .16$ 과 $-.14 \sim -.16$ 으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했다($p < .05$).

5.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성인기에 생애위기를 경험한 중도장애인이거나 이혼인의 자기해석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자기해석의 복잡성이 심리적 안녕을 돕는 효과가 자기긍정성, 즉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예측대로, 응답자들의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또한 자기해석의 복잡성은 생애위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응답자들 사이에서 의미 발견과 의미 부여를 돕는 관점의 다각화와 연관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 태도에 기여하였으며, 이 중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을 통한 경로로 심리적 안녕을 도왔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한 바와 같이 관점의 다각화는 생애위기를 경험한 집단에서만 직접적으로 긍정적 정서의 경험과 우울 감소에 기여하였고, 일반인 비교집단에서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만 도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구의 연구에서 간과된 복합적인 자기해석과 관점의 다각화가 생애위기의 경험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애위기를 겪지 않은 일반인들의 긍정적 태도와 심리적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함을 새롭게 밝혀주어 의미가 있다.

예측대로 중도장애나 이혼을 겪은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자기해석은 생애위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상호의존성의 경우 결혼상태를 통제했을 때 그러했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의 자기해석은 생애위기의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생애위기 경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가 비교집단 일반인들에 비해 강했고, 자신을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는 그들보다 약했다. 이는 그러한 생애위기와 그 이후의 생활경험이 당사자의 자기인식과 해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기에 질병이나 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중도장애인이거나 결혼관계의 해소로 홀로된 이혼인은 역경의 극복과정에서 재활이나 자립을 위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생활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인이나 이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당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 관계망의 축소 등(윤용석, 2005; 옥선화 외, 2006)은 자신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혼자로 구성된 비교집단은 결혼으로 성립된 다양한 관계망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보다 익숙하여 그러한 생애위기를 겪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혼인과 중도장애인 집단 모두 각각의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독립성을 높게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낮게 보고한 점과 중도장애인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기혼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점은 그런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¹⁵⁾ 하지만 생애위기의 유형별로 보면 이혼인과 그 비교 집단에서만 그런 자기해석의 차이가 양 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여 이혼이 성인 한국인의 자기인식이나 해석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¹⁶⁾

이처럼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이 각각 상대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기해석의 독립성이 높거나 상호의존성이 높아 이 두 집단의 복합적 자기해석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자기해석 점수를 토대로 측정된 복합적인 자기해석의 질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적 자기해석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r=.31, .19; p<.001, .05$ 각각)을 보였다. 즉 생애위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독립성을 높게 보고한 응답자일수록 상호의존성도 높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자기해석 유형의 집단 간 평균 차이로 인해 자기해석 복합성의 집단간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¹⁷⁾ 이러한 결과는 선형연구(Hyun, 1995)에서 이 두 유형의 자기해석 척도점수가 상관이 없거나 약간의 부적상관($r_s=-.07, -.17; p=ns, .05$ 각각)을 보인 것과 대조되고, 보다 근래에 실시된 연구(현경자, 2004)에서 정적 상관($r=.27, p<.01$)을 보인 것과 일관된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기해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른 표본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합적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을 통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예측된 간접효과는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 모두에서 자기조절 경로를 제외하고 자료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생애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유익한 심리적 자원이 됨을 시사한다. 복합적인 자기해석은 개인의 독립성과 관계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기능적일 수 있다. 이 연구는

15) 이 연구에서 미기혼자인 중도장애인($n=30$)의 평균 연령과 교육수준은 각각 42.6세($SD=7.44$)와 12.4년($SD=3.46$)이었고, 성별은 남성($n=20$)이 66.7%, 여성($n=10$)이 33.3%를 차지하였다.

16) 이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낮은 자들이 이혼을 보다 쉽게 하여 이혼인들의 그러한 자기해석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고려된 모든 집단 중에서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혼자인 중도장애인들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았고, 그러한 자기해석이 낮은 자가 성인기에 중도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연구에서 추론한 자기해석의 변화에 자신을 가져볼 수 있다.

17) 추가로 응답자의 독립적 자기해석이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점수가 한 쪽은 높고 한 쪽은 평균 또는 그 이하로 낮아 측정된 복합적 자기해석의 등급점수가 실제로 한 측면에 치우친 경우를 살펴보았다.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한 측면의 자기해석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 높고 다른 측면은 평균이나 그 이하 수준인 사례의 비율이 각각 12%와 14.7%로 나타났고, 한쪽이 1.5 표준편차 이상 높은 사례의 비율은 각각 7.1%와 5.6%로 높지 않았다. 이 사례들의 자기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의 등급점수가 보다 높은 사례가 많았고, 일반인 비교집단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등급점수가 보다 높은 사례가 많았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각 집단에서 확인되었다. 그런 사례들이 복합적 자기해석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도록 등급부여를 마이너스 점수부터 시작하도록 조정하고 재분석을 시도한 결과, 복합적 자기해석과 관점다각화 간의 관계방향이나 유의도에서 원래 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자신을 가져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자기해석이 생애위기 경험자의 적응과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Linville(1987)의 연구는 자신의 여러 면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각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즉 자기개념이 복합적인 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나 질병에서 보호됨을 보여주어,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자기인식이나 해석이 스트레스와 대처의 개인차를 초래하는 보호요인으로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돕는 한편 긍정적 정서와 우울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을 밝혀주어 그러한 인지적 특성이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긍정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도울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지적 활동, 즉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의 성찰, 의미 발견, 의미 부여, 긍정적인 측면의 주목 등은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를 도와 누구에게나 유용함을 시사하지만, 우울을 낮추는 효과는 생애위기를 경험한 집단에서만 나타나 그런 인지적 활동이 생애위기를 겪은 자의 정신건강에 보다 유익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다각화의 직접효과는 의미가 긍정적 감정을 생성하는 지렛대가 되어 부정적 감정을 제어하도록 돕고(Tugade and Fredrickson, 2004), 긍정적 감정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킨다(Fredrickson, 2000)는 기존연구들이 시사한 바와도 일관되어 고무적이다.

이 연구에서 관점의 다각화로 촉진되는 자기수용과 자기조절 중 자기수용은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와 우울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기조절의 그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 요인들은 상관분석에서 예측대로 모두 긍정적 정서 및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이 세 요인이 함께 고려된 경로모형 분석에서는 관점의 다각화와 더불어 자기수용의 직접효과만 생애위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일반인 비교집단에서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특히 커서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기만족이 일반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수용을 통해 모든 집단에서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여, 관점의 다각화로 촉진되는 의미 찾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애위기 경험자의 심리적 안녕을 돕는데 유용한 반면 이를 통해 키워지는 개인의 긍정성은 생애위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자기수용을 통한 경로로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조절의 예측된 효과가 이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것과 연관될 수 있다. 기존문헌을 보면 자기조절의 순기능은 매우 크다(Baumeister, 1998 참조). 자기조절은 개인의 환경적응과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 행동, 느낌, 충동, 수행 등을 적절히 규제하여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anaji and Prentice, 1994). 이 연구의 생애위기 경험집단에서 우울을 낮추는 자기조절의 효과가 거의 유의한 수준($p=.052$, 일방향)에서 발견된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쩌면 자기조절은 개인에게 장기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욕구 지연, 충동 억제 등의 일에 연관될 수 있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관점의 다각화나 자기수용에 비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자기긍정성 구성요인들의 효과를 중단적으로 살펴 자기조절의 차별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이 심리적 안녕에 관련된 경로를 살펴본 이 연구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근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자기존중감만 측정된 기존의 자기긍정성 연구 보다 진일보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합적 자기해석과 자기긍정성 변수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친 효과 분해를 통해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변수가 관점의 다각화였고, 우울 감소에 그런 설명력을 보인 변수도 일반인 비교집단을 제외하면 관점다각화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관점의 다각화가 직접 긍정적 정서를 돕고 우울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수용을 통해 그러한 심리적 안녕 변수들에 간접으로 기여한 정도가 높는데 기인한다. 이 연구에서 시도된 비교접근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는 인지적 활동이 생애위기의 경험자들 사이에서 의미 찾기와 긍정적 태도 양쪽에 탄력을 주어 적응과 심리적 안녕을 도울 수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우선적으로 긍정적 태도, 긍정적 정서 등 긍정성을 키워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찰은 비교접근의 수확으로 향후 관점다각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정립에 활용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

이 연구는 생애위기로 주류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도장애인이거나 이혼인이 변화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긍정적인 마음상태를 갖도록 돕는 일에 복합적인 자기해석,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이 중요하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계에서도 그러한 개인의 내적특성, 특히 사회구조와 역사문화 환경의 산물로 간주되는 자기해석(Fiske et al., 1998)이나 자기정체성(김경미·김미옥, 2006: 277)의 기능과 역할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환경 속의 인간”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학의 관점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질과 효과에 대한 관심과 개입을 강조하지만(Miley et al., 2001), 그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특성은 심리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간과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의 방대한 연구물이 일관되게 보여주듯이(한규석, 2009 참조) 환경의 영향력은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의 반응을 결정짓는 심리적 자질에 대한 이해는 환경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하다. 한 예로, 유교문화권에서 우세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저소득층 부부의 경제적 압박을 조절하여 아내의 정서적 고통과 남편의 부부갈등 인식을 낮추어(현경자, 2008), 그런 자기해석이 저소득층 부부의 결혼생활을 보호하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자기해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고, 개입의 지점 및 방향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실천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생애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찾기를 도우며 긍정적 태도를 양성할 수 있는 관점의 다각화와 같은 심리적 기제의 활용을 격려하고, 그러한 인지적 특성이 습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데 자원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자기해석을 도모하는 개입, 즉 당사자가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여 그러한 특성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중도장애인이거나 이혼인들 사이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자신의 관계성이나 상호의존성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팀 중심의 사회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동아리 모임의 참여, 취업을 통한 역할 확대 등을 지원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관점의

다각화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범주화하여 의미를 만들어가는 맥락이나 참조틀의 선택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그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조모임, 집단상담, 가족치료 등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위협한 특정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한 의미 발견이나 의미부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하나의 상황이 다양한 입장과 시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듣고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보호요인의 양성 차원에서 관점의 다각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의미를 찾는데 유용한 인지적 전략들, 인지적 재평가의 내용, 활용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발달단계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제작하여 임상세팅,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상황의 의미를 관찰자와 행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일(Langer, 1989),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의미 찾기 등의 훈련은 인지적 재평가로 맥락의 의미가 전환됨을 깨닫는데 유용할 것이다. 부모교육 시 자녀의 일탈이나 낮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류사회의 평가나 판단이 타당한지, 즉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범생의 범주나 성공의 의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관점의 다각화가 중요함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도장애나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의 경험자가 자신의 삶을 결과중심으로 보기보다 과정중심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격려한다면, 결과중심으로 볼 때 간과하기 쉬운 자신과 자기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챙김이 가능해져(Langer, 1989) 새로운 의미 발견과 의미 부여가 촉진될 수 있고 관점의 다각화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의 다각화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이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가르치는 긍정성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Langer(2002)가 지적했듯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본질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실제로는 긍정적 인 면도 보기에 따라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 역의 관계 또한 성립될 수 있어 단순히 긍정성을 키우는 훈련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관점의 다각화에 의한 의미발견이나 의미부여는 인간이나 세상사의 그러한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긍정성을 촉진하므로 그런 심리적 기제는 어떤 상황에서나 활용될 수 있고 항상 당사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의 힘이 그러한 관점의 다각화와 그에 따른 자기수용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기특성이 본 연구에서 추론된 바와 같이 생애위기 경험자들 사이에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도우며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시킨다면 당사자에게는 임파워먼트의 경험이 될 것이다(Rappaport, 1985). 또한 역경과 상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긍정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특성을 심리적 탄력성으로 볼 수 있다면(Tugade and Fredrickson, 2004), 이 연구에서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심리적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복합적인 자기해석,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은 그런 탄력성을 돕는 요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연구는 적어도 개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긍정심리의 활성화를 통한 임파워먼트와 탄력성의 촉진이 가능함을 시사하여, 이에 대한 담론이 사회복지실천 연구자들과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게 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 및 제언을 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증가나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들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표집대상의 특성 상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표집의 지역을 달리하여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응답성향과 연관될 수 있다. 다행히 이 연구에서 관점의 다각화가 선행연구들이 시사한 바와 일관된 직접효과를 생애위기 경험집단과 일반인 비교집단에서 차별적으로 보여 측정도구의 예측력과 변별력뿐만 아니라 조사자료의 양호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긍정성뿐만 아니라 사회긍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현경자, 2009), 본 연구에서는 생애위기의 경험으로 자기이미지나 자기해석이 도전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긍정성의 역할과 효과를 우선 알아보았다. 앞으로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사회긍정성이 심리적 안녕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연구는 관점의 다각화가 개인의 긍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생애위기의 경험자들 사이에서 역경극복의 동력인 의미 찾기를 도우며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점다각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세팅과 지역에서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선행연구(현경자, 2009)에 이어 그 간의 연구결과는 고무적이다.¹⁸⁾ 따라서 어떠한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요소가 그런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 연구에서 복합적인 자기해석이 관점의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개인들, 가족들, 직장들, 조직들 내에서 관점의 다각화를 격려하고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관점의 다각화로 촉진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창의적인 사고, 대안적인 의미의 창출, 새로운 가치의 인식 및 의미부여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지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렵고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적응과 심리적 안녕의 효과 또한 제한될 수 있으며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관점의 다각화와 같은 인지적 성향은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여 개발할 수 있고, 만약 제도적으로 그러한 소양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면 그 습득이 보다 용이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사물, 세상 또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는 인식방법이 사회적

18)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개인의 긍정성을 탐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대구지역의 일반인들과 대학생들 774명이 참여하였고, 본 연구에도 이혼인, 중도장애인, 일반인 등 다양한 표본이 이용되었다는 점, 이런 다양한 표본들에서 자기긍정성 변수들 간의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들과 심리적 안녕 변수들 간의 상관도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난 점 등은 결과에 대한 자신을 가져볼 수 있게 한다.

으로 존중되고 지원되어 정착될 때, 개인들, 가족들, 직장들, 조직들 내에서 관점의 다각화가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제 관점다각화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담론 형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경미·김미옥.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과 고찰: 장애인복지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69-294.
- 김계수. 200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미옥. 2008.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2): 99-129.
- 김수인. 2001.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울증상.” 『신경정신의학』 40: 416-424.
- 김오남. 200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85-118.
- 김지경·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김지혜. 2008. “이혼여성의 이혼의 의미 찾기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0(4): 35-75.
- 김효빈. 2001. “혈액투석 환자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재우. 2004.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관한 일 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15: 5-33.
- 문현숙·김득성. 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성정현. 1999.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 93-116.
- 손정연·한경혜. 2006.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83-102.
- 옥선화·남영주·강은영. 2006.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4(1): 223-235.
- 윤용석. 2005. “중도척수장애인의 장애 후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홍철. 1994.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조궁호. 2003.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229-283.
- 최정숙. 2004. “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9(2): 225-263.
- 현경자. 2007.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37-160.
-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현경자. 2009.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3-42.
- Banaji, R. and D. Prentice.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Baum, N., G. Rahav, and D. Sharon. 2005. "Changes in the Self-Concepts of Divorced Wom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3(1-2): 47-67.
- Baumeister, Roy. 1998. "The Self." pp. 680-740.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Edited by D. Gilbert, S. Fiske, and G. Lindzey. Boston, MA: McGraw Hill.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ross, S. 1995. "Self-Construals, Coping, and Stres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6): 673-697.
- Curran, P., S. West, and J.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Roos-Cassini, T. E. Aubin, A. Valvano, J. Hastings, and P. Horn. 2009. "Psychological Well-Being after Spinal Cord Injury: Perception of Loss and Meaning Making." *Rehabilitation Psychology* 54(3): 306-314.
- Diener, E., and M. Wallbom. 1976. "Effects of Self-Awareness on Antinormativ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107-111.
- Diener, E., E. Suh, R. Lucas, and H. Smit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ffy, M., C. Thomas, and C. Trayner. 2002. "Women's Reflections on Divorce: 10 Years Later."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3(6-7): 550-560.
- Dunn, D. 1996. "Well-Being Following Amputation: Salutary Effects of Positive Meaning, Optimism, and Control." *Rehabilitation Psychology* 41(4): 285-302.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5): 404-416.
- Fiske, A., S. Kitayama, H. Markus, and R. Nisbett. 1998.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pp. 915-981.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2), Edited by D. Gilbert, S. Fiske, and G. Lindzey. Boston, MA: McGraw Hill.
- Frankl, V.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edrickson, B.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and Treatment* 3: 1-24.
- Heine, S., D. Lehman, H. Markus, and S. Kitayama.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Keyes, C., D. Shmotkin, and C. Ryff.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King, L. A., and C. Raspin. 2004. "Lost and Found Possible Selves,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the Divorced." *Journal of Personality*, 72(3): 603-632.
- Kline, R.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Kwan, V., M. Bond and T. Singelis.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38-1051.
- Langer, E. 1989. *Mindfulness*. Cambridge, MA: Da Capo Press.
- Langer, E. 2002. "Well-Being: Mindfulness vs. Positive Evaluation." pp. 214-230. I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ited by C. R. Sny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 Linville, P.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 Markus, H., and E. Wurf.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and S. Kitayama.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ey, K., M. O'Melia, and B. DuBois. 2001.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Neisser, U. 1988. "Five Kinds of Self-Knowledge." *Philosophical Psychology*, 1(1): 99-123.
- O'Connor, M. 2002. "Making Meaning of Life Events: Theory Evidence and Research Directions for an Alternative Model." *OMEGA* 46(1): 51-75.
- Priestley, M. 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and Society* 13(1): 75-94.
- Radloff, L., and B. Locke. 1986.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urvey and the CES-D Scale." In *Community Surveys of Psychiatric Disorder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Rappaport, J. 1985. "The Power of Empowerment Language." *Social Policy* 17: 15-11.
- Reich, J and A. Zautra. 1981. "Life Events and Personal Causation: Some Relationships with Satisfaction and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5): 1002-1012.
- Richards, M., R. Hardy, and M. Wadsworth. 1997. "The Effects of Divorce and Separation on Mental Health in National UK Birth Cohort." *Psychological Medicine*, 27(5): 1121-112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Press.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chaefer, J. and R. Moore.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Westport, CT: Praeger.
- Seligman, M.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Arthur Pine Associates, Inc.
- Thompson, S. 1985. "The Searching for Meaning Following a Strok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 81-96.
- Thompson, S. 1991. "Finding Positive Meaning in a Stressful Event and Cop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279-295.
- Tugade, M., and B. Fredrickson.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Turner, R., and M. Beiser. 1990. "Major Depress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the Physically Disable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6): 343-350.
- van Schalkwyk, G. 2006. "Explorations of Post-Divorce Experiences: Women's Reconstructions of Self."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90-97.
- Yanez, B., D. Edmondson, A. Stanton, C. Park, L. Kwan, P. Ganz, and Blank, T. 2009. "Facets of Spirituality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ancer: Relative Contributions of Having Faith and Finding Mea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4): 730-741.

Complexity of Self-Constru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People with an Experience of Life-Crisis Due to Physical Disability or Divorce

-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as Mediators -

Hyun, Kyoung-Ja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is questionnaire study examined the processes linking complexity of self-construal to self-positivity conceptualized as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that, in turn,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people with an experience of life-crisis during adulthood due to physical disability or divorce. Data were drawn from 359 adult Koreans resid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cluding the physically disabled, the divorced, and their counterparts without a life-crisis experience during adulthood for comparison. On average, the life-crisis experience group(LEG) had a higher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a lowe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than the comparison group(CG). As predicted, complexity of self-construal contributed to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that helps searching for meaning, and this, in turn, was found to foster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Through these variables except self-regulation, complex self-construal contribu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s manifested by a higher level of positive emotion and a lower level of depression. As expected, while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fostered positive emot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acceptance among LEG and CG, only in LEG it directly reduced depression. The comparative approach employed in this study enabled to discern that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promot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LEG by contributing to both meaning making and positive attitude, whereas it promot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CG primarily by fostering positive attitude. Finall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Life-crisis, Divorce, Dis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Self-construal, Multiple perspectives, Self-acceptance, Depression, Positive emotion

[논문 접수일 : 10. 06. 04, 심사일 : 10. 06. 21, 게재 확정일 : 10. 10. 04]